



우강 권이혁장관 에세이

### 생명윤리

의료윤리는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이미 2천5백여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지정한 바 있다. 그는 환자에게 독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독을 준다는 것이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적 지식과 기술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안락사와 같이 불법적인 진료행위를 시행하는 것 등을 말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의 의료윤리는 환자의 인권 존중과 환자에 대한 언어와 태도까지도 포함한다. 1964년에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던 제18회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채택한 '헬싱키 선언'은 '의사의 사명은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있다. 의사의 지식과 양심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헬싱키 선언'은 1975년 도쿄 총회에서 수정되어 생물학(ethical) 연구에 종사하는 의사를 위한 권고와 더불어 의사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1960년대부터 '생명을 다루는 윤리' 사상이 구미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의학연구를 위한 피험자(被験者)의 인권을 옹호하고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생명윤리(bioethics)이다.

'헬싱키 선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ethical)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가 생명윤리의 기본인데 급속도로 진행되는 의학·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장기 이식이나 뇌사, 말기환자, 체외수정, 유전자 조작 등의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명윤리는 의학적 영역보다 더욱 넓어진 본질 파악에 도전하는 학문영역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2003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허용과 규제를 정한 법률이다. 인간배자 행위는 금지하고 치료목적의 줄기세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생명윤리 법안은 2000년 1월 법안제

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 유전자 복제 연구와 관련한 과학적 한계를 규정하는 데 대해 과학계·종교계·사회단체 간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4년간 진통을 겪다가, 2003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생명윤리법은 ▲임신 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 성(性)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유전정보를 이용해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유전자 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불임시술을 위해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 배아에 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나,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 핵이식(체세포 복제) 행위를 금지하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연구 허용범위는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RD)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해놓았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만든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이를 통해 복제 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그 처벌조항이 발효되었다.

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생명윤리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불임 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되지만, 정자와 난자의 상업적 유통은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에서 일반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질병진단 관련 유전자 검사가 금지된다. 벤처기업의 유전자 검사는 전자감별 등의 목적에만 국한된다.

또 병원과 벤처기업 등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모두 보건복지가족부에 신고해야 하며 해마다 정확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희귀·난치병 질환을 위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대상은 척수손상·백혈병·뇌졸중·알츠하이머병·당뇨병 등 18개에 한정되며 행위는 금지하고 치료목적의 줄기세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생명윤리 법안은 2000년 1월 법안제



홍수가 세운 한(漢, 전조)에 포로가 된 진(晉)의 회제(懷帝)가 죽었다. 유총(劉聰)은 유연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고 나서 잡혀온 진(晉)의 황제인 회제(懷帝)에게 노비들이 입는 푸른 옷을 입혀서 연회에서 술을 따르게 하였다. 술에 취하여 회제를 모욕한 것이다. 이에 옛날 진의 대신이었던 사람이 반발하였고, 이 때문에 회제를 비롯하여 진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 죽였다.

유총은 승리에 들떠 있었다. 외가인 한나라의 부흥을 외치고 나라를 세우고 중원지역으로 진출한 홍노족의 유총이 황제가 되어 목표를 다 이룬 듯 생각이 들었다. 그때에 귀빈이었던 유아(劉娥)를 황후로 삼고 그녀를 위하여 봉의전(鳳儀殿)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였다.

유총이 사치에 빠진 것을 본 진원달(陳元達)이 간절하게 말했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당시에 파죽의 이음이 나라를 세워 가지고 있고, 다른 반대 세력도 많으니, 사치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 성공한 제왕은 절약을 생활화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옛날 한나라 문제는 노대(露臺) 하나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 공사비용이 백금(百金)이 들어간다는 보고를 듣고 이를 중지하였다는 이야기

### 유총을 돕는 사람들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이 말을 들은 유총은 황제인 자기가 전각하나를 짓는데, 이렇게 반대하니 목을 베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화를 냈다. 유총은 유합하는 동산인 소요원(逍遙園)의 이중당(李中堂)에서 진원달을 잡아오게 하였다. 그래서 진원달을 체포하여 허리를 쇠사슬로 묶고 나무에 묶어 두었다가 끌어내어 목을 베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처자도 함께 동쪽의 저지에서 효수(梟首)하고 여러 쥐새끼 같은 놈들을 한 구덩이에 집어넣으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원달은 조금도 물러날 기세가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옛날에 한나라의 폭군 곽(桀)에게 충신이었던 용봉(龍逢)과 은 나라 때의 충신인 비간(比干)처럼 되겠다고 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 가운데 진원달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유총은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황후 유아가 비밀리에 진원달에 대한 형의 집행을 보류하게 하고 유총에게 말하였다. 옛날부터 나라나 집안이 망할 때에는 부인에게서 시작하지 않은 일이 드문데, 현재 유총처럼 자기를 위하여 전각을 지으면서 이를 반대하는 신하를 죽인다면 후세에는 모든 잘못의 원인이 황후인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차라리 황후가 되어 즐기게 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 대사도인 임의(任蠟)와 광록대부인 주기(朱紀)와 범룡(范龍) 그리고 표기대장군인 하간왕 유이(劉易) 등은 관(冠)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머리가 땅에 부딪쳐서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후의 말을 들은 유총은 스스로 반성하였다. '최근에 바람병이 들어서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차이가 많아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충신인 진원달을 제대로 살펴 보지 못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또 죽음을 무릅쓰고 이러한 사실을 밝혔으니, 마음속으로 부끄럽다.'고 하고 이어서 '밖으로는 진원달 같은 충신이 있고, 안으로는 유아 같은 황후가 보필하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하였다.

유총은 아직도 당(堂) 아래에서 피를 흘리면서 간언하는 신하들에게 관(冠)을 쓰게 하고, 진원달을 불러서 당 위로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강하게 간언을 한 임의 등에게 비난과 곡식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소요원(逍遙園)이라는 이름을 납현원(納賢園)으로 바꾸었다. 현명한 사람을 거두어들이는 동산이라는 뜻이었다. 유총이 새로운 태도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충신과 현명한 황후가 있고, 이를 받아주는 군주가 있는 나라는 건강한 나라이다. 홍노족이 낫선 증원에 와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 바로잡음

본지(2011. 5. 1. 431호) 1면 능동양소 춘향제수 성금 명단에 권혁승 추밀공과대중회장을 추밀공과정간공중회 30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 權世萬翁 결혼60주년 回婚禮

지난 4월 19일 오전 11시30분 부산북구 화명동 자택에서 하객(賓客) 400여명이 참석 하에 안동태생 권세만(權世萬翁)의 결혼 60주년을 맞이하여 회혼례를 거행 하였다. 이날 행사 사회는 안동 청오(靑梧) 장정순(張鼎淳) 선생의 창출(唱笏)로 진행하였다. 권옹(權翁)은 부산으로 이주하여 30여 년간 조산소 중역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영도(影島) 화수회(花樹會)를 창립하였고 안동권씨 부산총친회 제9대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송조애족 사상(崇祖愛族 思想)이 투철하였다.

하객으로는 종친회 고문, 자문위원 등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부산총친회 김상회 장은 공(公)이 종사에 기여한 공(功)에 대해 높이 칭송하고 부인의 고향친구인 임점구 여사는 부부금슬(夫婦琴瑟)이 타의 모범이라고 치하를 하였다. 공은 추밀공2대세손으로서 파조를 비롯 남중공, 태사모 등 각 향사에 도유사(都宥司)를 지



냈으며 슬하에는 2남3녀를 두었으며 모두들 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어 피로연에서 덕담이 오갔으며 공은 오복을 두루 갖춘 천복(天福)을 타신 분이라고 하였다. 연회는 색동저고리 음악에 맞추어 노래와 춤으로 웅도 도포와 갓을 쓰고 학무(鶴舞)를 추며 화기가 넘치는 즐거운 분위기였다. 고향서 온 하객은 관광 후 합세하여 연회를 즐겁게 마무리하고 귀로에 올랐다. <권재혁 사무국장>

### 등산하면서 역사 속으로

## 용문산(龍門山)

■ 향촌 권 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용문산(고 1,157m)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리에 솟은 영산(靈山)이다. 용문산의 원명은 미지산(彌知山)이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개국 후에 용문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산은 백두대간에서 뻗어 나왔고 산봉우리는 양평 시내를 바라보면서 남한강 북한강이 마주치는 양수리 두물머리 일대를 굽어 본다.

용문산 하면 천년 묵은 은행나무로 유명하다. 수령이 1,100년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고 나무 주간 높이는 67m 둘레는 15.2m가 되어 어른 수령이 팔을 벌려 손을 맞잡아야 그 둘레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에 대한 숨은 전설이 많다. 나비에 큰 일이 일어날 때에는 꼭 어떤 징조로 예고한다는



것이다. 가깝게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승하할 때에 은행나무 가지가 꺾여졌으며 6·25사변이 일어났을 때에도 나뭇가지가 뿌러졌고 은행나무 가까이 있는 절경 내 정지국사 비석이 땅을 훑었다고 전한다. 이 은행나무에도 또다른 수난이 많았다고 전하는데 한 때에는 이 열매를 수확하여 상납한 경우도 있었고 몇 차례 불이 나서 가지가 불났으나 새 가지가 뻗었으며 근래에는 밑둥이 썩은 것을 나무병원에서 치료를 하였다고 한다. 이 나무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

고 노란 단풍은 등산객과 관광객을 즐겁게 하여 주고 있다. 이 나무를 심은 데 대한 2가지 전설이 있다.

그 하나는 신라때에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은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용문산에는 역사깊은 용문사가 있다.

용문사는 913년(신라선덕왕 2년)에 대경(大鏡)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설에는 신라 경순왕이 국가안위를 위하여 절을 지었다고 하나 선덕왕과 경순왕과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정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다.

용문사의 경내에는 대웅전 관음전 종각 등이 있고 금동관음보살좌상(지방문화재 제172호)이 있으며 정지국사비와 그의 부모(보물 제531호)가 있다.

정지국사는 누구인가? 그의 본명은 지천(知泉)이고 속세에서는 김(金)씨였다. 1324년(고려 충숙왕 11년)에 출생하여 조선 태조 4년까지 생존하였다고 한

다. 고향은 황해도 재령이고 19세 때에 현암사에서 중이 되었고 1353년(공민왕 2년)에 연경에 들어가서 수도하였으며 30세 때에는 연경에 있는 법원사(法源寺)의 지공(持空)대사를 알현하고 혜근(惠勤)대사에게 사사하고 1356년에 귀국하여 수행하다가 천마산 적멸암에서 입적하였다.

정지국사의 비는 조선 초기 필자의 방계 선조이신 양촌(陽村) 권근(權近) 선생이 비문을 써서 더욱 유명하다.

용문사가 또한 유명한 것은 1378년(우왕 4년)에 천경천에 있던 대장경을 옮겨 봉안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용문사는 1477년 때에 세종대왕의 왕비인 소헌왕후가 이 절에서 불공을 드렸고 1457년 때에는 세조가 절을 중창하라는 명을 내리신 바 있다고 하였다.

용문사 또는 수난도 많았다. 일제(日帝)가 용문사가 의병활동의 근거지란 이유로 이 절을 모두 불질렀다.

현재의 용문사는 6·25사변 때에 불타버린 것을 재건하였다. 6·25전쟁 도중에는 중공군이 용문산 일대에 인해전술

로 밀려 올 때 이를 국군이 막아 승전하였으나 피아간에 치열한 전투를 치른 곳이다. 그날의 무공을 용문사 입구 주차장 오른쪽에 무명용사의 입상에서 기록을 남겨주기 바란다.

특히 1937년대에 용문산 일대에 백백교가 횡행하여 교도 300여명을 그들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백백교(白白敎)는 동학계통의 유사종교인데 세상을 펼치고 영혼 불멸사상을 갈파하여 대중을 현혹하고 교도의 재물을 편취하고 후세무민을 일삼았으며 교지에 따르지 않고 탈퇴하는 교도에 대하여서는 교도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용문산은 용문사와 함께 늘 역사의 운명을 같이 하는 환경이며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용문산에는 함왕성(咸王城)이 있다. 용문산 남쪽 함왕봉 서쪽 산록은 함왕성 유취지이며 함계대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성을 하였다고 전하는데 사나아래 성을 쌓은 전장은 2km에 달하고 있다.

사나아 일주꾼까지 가기 전 계곡에서 함왕혈(咸王穴)을 볼 수 있다.

### 성원에 감사합니다

- 회장단회비
  - ▲관정섭(부회장) 100만원
- 운영위원회비
  - ▲권혁원(수원) 10만원
  - ▲권오익(인선) 10만원
 소계 20만원

- 찬조금
  - ▲권경섭(부회장) 400만원
  - ▲관봉도(부회장) 200만원
  - ▲영천총친회 10만원
  - ▲구미·선산총친회 10만원
  - ▲대구총친회 10만원
 소계 630만원

합계 750만원

### 축사량

불교의 '부모은중경'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경전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10개월이나 뱃속에 잉태하는 동안 앉거나 서 있거나 무거운 짐을 떠맡는 듯이 해야 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오랜 병자처럼 잘 소화되지 않는다. 달이 차서 아이를 낳을 때에도 온갖 고통을 받으며 생명을 넘나들게 된다. 이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단 것은 뱀이 먹고 쓴것은 삼키면서 인어주고 보살피며 키웁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고생됨을 주저하지 않는다. 3년 동안 어머니의 땀이 아니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며 한창 나이에 이르면 예의와 법절을 가르치고 공부시켜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 장가 시집보낸다.

이렇게 하여도 평생 동안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정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 곁에 눈물을 흘린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며 '효'를 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부처님께서 '효'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김삼열 효 이야기 중에서>

### 제4회 부부의날 정부기념식 개최

장 권재도 목사는 「부부의날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유엔세계기념일 제정이다.

여기에 '거창사과' '함양산삼' '9·15 인천상륙작전기념일 한·미 공동국가기념일 제정' 등은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 특히 '9·15 인천상륙작전기념일'은 프 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기념일'처럼 세계적인 기념일로 승격 제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편>

함왕성은 몽고군을 피하여 피난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용문산 등산코스는 용문산 입구 주차장에서 용문사 쪽으로 일주문을 통과하고 용문사 경내를 지나 마당비위 계곡을 따라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이다.

이 코스는 밤나무 도토리나무 소나무 숲이 있고 철쭉모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길 옆에는 사시사철 계류가 흘러 심산의 경치를 느끼게 한다.

또다른 코스는 양평에서 새수골 백운봉 함왕봉 장군봉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이다. 양평 옥천면에서는 용천3리를 출발하여 사나아 계곡 함왕봉 장군봉 코스가 있다.

모든 코스는 5시간에서 5시간 30분이면 충분하다.

고통편은 서울에서는 동부버스터미널에서 용문양평행 버스를 이용한다. 기차는 청량리역에서 수차례 있으니 용문역 앞에서 내려 연결버스도 용문산주차장까지 약 20분 걸린다. 속식은 용문사 주차장 근방이나 용문역 근처에서 편리하게 해결된다. <끝>